

From : Kimbyung
Date : July 13, 2010

Subject : FW : 3천원이 가져다 준 행복

3천원이 가져다 준 행복



그날따라 대형 할인점에는
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.

모두 카터에 물건들을 가득 싣고 분주하게
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.

주말이라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

계산대 역시 북적거렸습니다.

어림잡아 한 20 분을 기다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.

지루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바로 앞에 서 있는

여섯 살쯤 된 여자아이가 눈에 띄었습니다.

웃은 초라하게 입고 있었지만

눈매가 총명했으며 착하고 푹푹해보였습니다.

내 눈길을 한 번 더 잡아끈 것은 그 아이가

들고 있는 작은 꽃병이었습니다.

'저 꽃병 하나 사려고 이렇게 오래 줄을 서 있다니.

아이 엄마는 어디 갔지?'

그 아이는 입을 꼭 다문채 가만히 기다리고 서있다가

자기 차례가 오자 깨질세라 꽃병을

자기 키높이만한 계산대에 조심
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.

계산원은 기계적으로 바코드에 식별
기를 갖다뒀고 가격을 말해줬습니다.

"6 천 8 백 원이다."



아이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.

"6 천 8 백"원 이라고요.

이상하다 4 천 원이라고 써 있었는데."

"네가 선반에 붙은 가격표를 잘못 봤나보구나.

위쪽에 붙어있는 가격표를 봐야 하는데

밑에 있는 가격표를 봤구나."

"4 천 원밖에 없는데..... "

아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.
순간 나는 계산대에 눈길을 고정시키고 가만히 있는

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.

계산원도 거들었습니다.

"어떻게 할 거니? 다른 걸 골라오든지,

아니면 집에 가서 돈을 더 가지고 와라."

아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.

그때 보다못한 내가 얼른천 원짜리 세 장을

계산원에게 내밀었습니다.

"이걸로 일단 계산 해주세요."

" 아 아이를 아세요?"

" 아니요. 그냥 해주세요."

계산이 끝나자 아이는 계산대 옆에서

내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

내가 계산을 한 후 카터를 밀고 나오자 아이가

내 앞으로 와서 고개를 숙였습니다.



"아주머니, 고맙습니다."

아이는 조그만 손으로 거스름돈 2 백 원을 내밀었습니다.

"그건 놔둬라. "

그런데 물어볼까 말까 망설이다가

"엄마는 어디 가셨니?"

도저히 궁금해서 견딜수가 없었습니다.

"엄마는 지난 여름에 돌아가셨어요."
아이가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.

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.

"그럼 너 혼자 이 꽃병을 사러 왔니?"

"지난번에 엄마 산소에 갔는데

엄마 산소 앞에만 꽃병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..... "

"그럼, 아빠하고 같이 오지 그랬니?"

"아빠는 병원에 계세요. 집에는 할머니밖에 안 계세요."

무슨 보물이나 되는 것처럼 꽃병을 가슴에 안고 걸어가는
아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.

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늦은 시간까지

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했
습니다. "제발 그 아이가 더 이상 큰 아픔 없이 잘 자랄 수
있게 도와달라고..... "

난 그날 단돈 3 천 원으로 평생 잊지 못할
추억을 하나 샀습니다.